

0 7 | BQE(Bluetooth Qualification Expert, 블루투스 인증심사관) 자격획득

블루투스 국제인증의 확대와 TTA의 역할 증대

최근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블루투스 국제인증 획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약 60%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대전화 액세서리에도 빠르게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의 무선기술이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추세인 데 반해 블루투스는 항상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는 유럽을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휴대전화와 다양한 액세서리에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자 관련업체들 역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블루투스 관련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국제시장에서 공인된 국제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세계시장 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계시장의 IT산업을 선도하며 블루투스를 장착한 제품의 수출활로를 개척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블루투스 국제인증이다.

블루투스 인증시험 대상도 과거 무선 핸즈프리 통화 기능의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엔 무선 키패드를 포함한 컴퓨터 주변기와 카메라, 내비게이션, 프린터 등은 물론 산업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확장은 국내 블루투스 국제인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블루투스 국제인증 사례는 2004년 16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235건, 2007년에는 379건을 기록하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블루투스 국제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TA는 지난 2003년에 세계 블루투스 단체인 SIG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BQTF)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2월 8일부터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2.0+EDR(Enhanced Data Rate)' 제품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루투스 2.0+EDR은 기존 블루투스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전송대역폭을 1Mbps에서 최대 3Mbps로 증가시

킨 최신 규격이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Ver1.2를 포함하여 블루투스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에서 제정한 RF, Protocol, Profile 적합성 시험 및 상호운용성 시험 서비스 등 모든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험소가 되었다.

이강해 선임연구원 국내 최초 BQB 자격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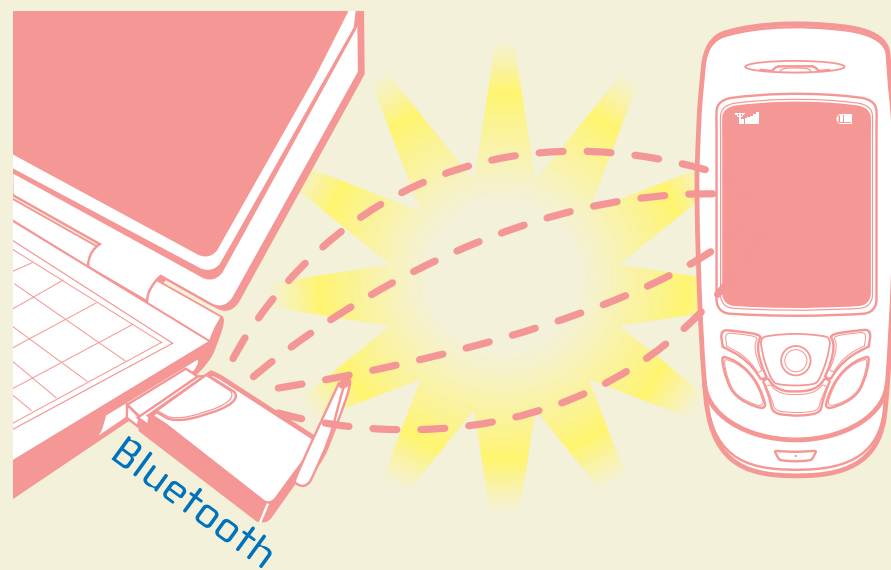
국내 블루투스 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온 TTA는 2006년 3월 24일 대한민국 블루투스 시험인증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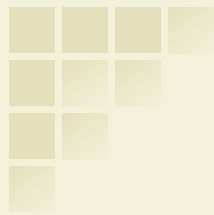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2006년 3월 24일 TTA 시험인증연구소 이강해 선임연구원의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블루투스 인증심사관) 자격 획득을 발표한 것이었다. 블루투스 인증심사관 선정은 국내 기관에서는 최초이며, 전 세계에서 33번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블루투스 인증심사관이란 블루투스 제품

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블루투스 SIG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심사관을 말한다. 블루투스 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프로그램에서 블루투스 인증심사관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Bluetooth SIG는 2007년 1월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인증심사관의 명칭을 BQB에서 BQE(Bluetooth Qualification Expert)로 변경하였고, Enforcement Program(사후감사) 제도를 신설하여 BQE 심사 없이 리스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TA는 이강해 연구원의 BQE 자격획득으로 인하여 기존의 BQTF 블루투스 인증시험 및 BQE 인증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블루투스 관련 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블루투스 국제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업체들은 고가의 시험비용과 BQE 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장기간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강해 연구원이 BQE 자격을 획득함으





로써 TTA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블루투스 국제시험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강해 연구원은 2001년 블루투스 업무를 시작하여 2003년 5월 TTA가 BQTF (Bluetooth Qualification Test Facility : 블루투스 국제공인시험기관)로 인정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블루투스 휴대전화, 헤드셋 등 많은 블루투스 인증 프로젝트를 국외 블루투스 인증심사관들과 연계하여 수행해 왔다. 또한 2002년부터 SIG 기술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시험 표준 및 인증프로그램 제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국내에 보급하고, 2008년 현재까지 블루투스 휴대전화, 헤드셋 등 약 300여 개의 블루투스 인증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블루투스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BQE-AST’ 자격 획득에 이은
‘Top Listing BQE APAC Award
2006’ 수상**

Bluetooth SIG는 그 동안 SIG에서 규정한 사양을 만족하고 상호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제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블루투스 제품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출시된 제품은 블루투스 제품 간 호환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는

곧 블루투스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Bluetooth SIG는 자체적인 시험을 통과한 블루투스 인증심사관에게 BQE-AST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나 잘못 인증된 제품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BQE-AST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강해 연구원은 BQE 자격을 획득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2007년 7월 2일,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BQE-AST’ 자격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관련 업계를 흥분시켰다.

BQE-AST는 블루투스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존의 BQE 업무 이외에 감사(Auditor), 시장조사(Surveillance), 교육(Training)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현재 전 세계 39명의 BQE 중에서도 11명만이 BQE-AST 자격을 획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TTA는 이강해 연구원의 BQE-AST 자격획득으로 최신 SIG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감사를 통해 국내 블루투스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블루투스 시험인증 분야에서 이강해 연구원의 활약은 단지 ‘BQE’와 ‘BQE-AST’ 자격 획득에 그치지 않았다. 2007년 3월에는 TTA 이강해 인증 심사관(BQE)이

블루투스 SIG APAC(Asia Pacific)으로부터 블루투스 ‘Top Listing BQE APAC Award 2006’을 수상한 것이다. ‘Top Listing BQE APAC Award 2006’은 전 세계 BQE들 중 2006년 블루투스 인증심사 실적에 우수한 BQE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강해 BQE는 2006년 4월 자격을 획득한 후 총 65개 제품을 인증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실적이며, 블루투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TTA의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이에 따라 TTA의 블루투스 시험인증 실적도 2005년 44건, 2006년 235건, 2007년 315건을 수행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강해 BQE의 123개 제품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출시된 블루투스 인증제품이 총 853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약 15% 가량의 제품 인증을 TTA가 수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정구 연구원 블루투스
인증심사관(BQE) 자격획득**

2008년 5월 16일에는 또 하나의 희소식이 TTA로 날아 들어왔다. Bluetooth SIG가 TTA 이정구 연구원의 블루투스 인증심사관(BQE) 자격 획득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정구 연구원은 2001년부터 블루투스 시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강해 연구원과 함께

2003년 5월 TTA가 BQTF로 인정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TTA BQTF 기술책임자로 국내외 많은 블루투스 인증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05년부터 Bluetooth SIG 기술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시험표준 및 인증프로그램 제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블루투스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정구 연구원의 BQE자격 획득으로 TTA는 이강해 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의 BQE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TTA는 국내외 블루투스 시험인증 수요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블루투스 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강해 연구원〉



〈이정구 연구원〉

